

‘상위권 성적 조작’사과·반성은커녕 광주교육청 감사 전면 부정

화난 지역민 “적반하장 고려고 엄정 수사”

교장·교감 고발에 추가 비리 의혹까지...경찰 수사 관심 집중

성적 상위권 학생을 특별관리하고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광주 고려고등학교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고가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데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불법찬조금 등 추가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지난 23일 고려고 교장과 교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에 고발했다.

학교관리자인 교장·교감이 학업성적과 평가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했고,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모임 측은 특히 “교내에서 불법과 편법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침묵한 것이라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내신 등 교육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고려고 교장과 교감 등은 지난 22일 “상위권 학생을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부도덕한 학교가 아니다”며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고려고측은 특히 이번 사태로 광주교육의 공신력 실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잘못에 대한 반성은 뒷전인 채 시교육청을 상대로 성적조작과 성적비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것과 협박·조작 감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지역민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광주북부경찰도 신속한 수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고려고에 대한 각종 의혹이 추가되고 고발장 등도 추가로 접수되면서 수사기간은 물론 수사범위도 상당 부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시민모임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교장과 교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교장과 교감이 교원으로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고,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 업무방해가 있었는지와 성적 조작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또 시민·교육단체들이 제기한 학부모 대상으로 한 불법 찬조금 의혹 및 부정정탁·금품수수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학교가 특정 학생의 내신성적 등을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참여했는지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고려고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이어 추가되고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접수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

다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고는 지난달 5일 치러진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객관식 3문제와 서술형 2문제 등 5문제를 성적상위권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수학생우회 31명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시험문제 유출은 사실로 밝혀져 담당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빈칸’으로 제출한 서술형 문제 답안에도 점수를 주거나 똑같은 답을 적어도 다른 점수를 주는 등 채점 오류 사례도 150여건이나 발견됐으며, 심화반을 편성해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논술’과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시간을 영어·수학 수업으로 대체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도 다수 적발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잇단 SRT 잡음...이번엔 고장으로 연착 취업 응시생 수십명 시험 못 치러 피해

광주발 수서행 SRT 고속열차가 고장으로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서 서울교통공사 수험생 수십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서울발 광주행 SRT 객실내에서 10여 분간 난동사건(광주일보 2019년 8월 23일자 6면)이 벌어지는 등 SRT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객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SRT 탑승객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6시 21분에 광주 승정역에서 출발 예정인 604 열차의 ‘자동제어장치’(선로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열차를 자동으로 멈춰 세우는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승무원과 기관사 등이 10여 분 정도 정비를 마치고 다시 열차를 출발시켰지만, 전북 정읍역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SRT측은 이날 오전 8시께 익산역에서 승객 202명을 비상 열차에 옮겨 태웠고, 오전 8시 21분 도착 예정이었던 이 열차는 1시간 10분 정도 늦어진 오전 9시 32분 수서역에 도착했다. 이날 604 열차에는 오전 9시30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지는 서울교통공사 수험생 40여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결국 시험장에 입실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RT 관계자는 “승객들에게는 열차 지연확인을서를 발급하고 운임 전액을 환불해주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희롱·갑질’ 광주시청 공무원 강등 징계 적법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징계계를 받은 광주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광주시 공무원 A(5급)씨가 시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내부 행정포탈에 “모 부서 중견간부들의 갑질로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 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된 이후 감사에 착수, “A씨가 2017~2018년 부하 직원 2명에게 성희롱과 언어·정서적 폭력을 했다”며 징계 조치했다.

광주시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다른 간부가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사가 내 X이다”고 화를 내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또 회식 중 “남들은 여직원 B가 예쁘

다던데 나는 모르겠다. 여자로 안 보인다. C는 아가씨 때 씌웠고 예뻐했는데”라고 말하거나 늦은 밤 술에 취해 업무와 무관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여직원은 일찍 출근해 상사 책상도 닦고 커피도 타준다”며 업무 외 잡일을 요구하거나, 오전 8시 이전 출근, 5분 이상 자리 비우지 말 것, 화장실 15분 안에 다녀올 것 등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업무로 쌓인 불만을 참지 못하고 욕설로 표출했으나 성희롱은 아니었으며, 성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출근 시간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욕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기간 성적 언동이나 언어폭력을 했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민대회 ‘친일적폐 청산’ 광주시민들이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글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승리 광주시민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친일적폐 청산’ 등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성 이색 동·식물 체험관 화재...조류 등 2500마리 불타

25일 오전 1시 35분께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동·식물 체험관 ‘정글주에버니’에 불이 났다. 불은 2600㎡ 규모의 체험관 가운데 800㎡ 정도인 온실 건물 3개 등 일부를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에 119소방대에 의해 꺼졌다.

나무 등 이색 동·식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이색 체험관으로, 귀농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화재로 새 2500여마리와 파충류 30여마리가 죽고, 바나나 나무 50여주와 귀리 50포대(가량) 등이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죽은 동·식물과 불에 탄 시설물을 합산해 2억3454만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지리산 등반 50대 폭포 추락 사망...실족 추정

지난 2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에서 산행하던 A(59)씨가 20m 아래 용소폭포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와 함께 산을 타던 산악회 회원 중 1명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이 통제된 비법정탐방로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일행은 “길을 잘못 찾아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규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성폭행 피해자에 악의적 소문 유포 대학생 무기정학 정당

성폭행 피해 여대생 “꽃뱀”으로 표현하는 등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한 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A씨는 “학과 행사 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B씨를 혼자 놔둘 수 없어 같은 학과 C씨의 집에 데려다 줬을 뿐인데,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씨가 오히려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자 억울한 마음을 주변에 알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B씨에 대해 A씨가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가해자인 C씨를 두둔한 점은 징계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시.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무안군 몽탄면 대형펜션
영산강 접경관 최고 땅 490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포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 노유지시설에도 최고임. 32억

임야
합니다.010-6834-7400
※맹지사절/신속처리※

장성토지매매!!
4층,30평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지번: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 나대지
면적: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7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